



일본연수를 마치고

위 속 자 (의정부성모병원)

10월1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우리 연수생 10명(간호사 9명, 약사1명)은 마중 나온 쓰다와 이께다선생님의 안내로 준비된 버스를 타고 1시간 후 구루메시에 있는 성마리아 병원 마리안 하우스에 여장을 풀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일본의 풍경은 후손들을 위해 심었다는 짙은 푸른색이나 무와 집집마다 작아도 깨끗하고 예쁘게 꾸며진 정원들에서 일본인들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었다.

우리가 머물렀던 구루메시는 인구 24만 정도의 작은 도시로 날씨와 풍경이 우리나라 제주도를 연상케 하였다.

성마리아 병원은 부지 34,656.53㎡의 총 1,338병상으로 16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가톨릭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활동을 전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3년에 이곳 구루메시에 개설되었는데 처음 소규모의 의료시설에서 시작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핵병상, 인공신장센터, 신생아-소아 구급의료센터, 재택간호 지원센터 및 노인 보건시설인 성모의 집을 개설하였다.

이 곳 성모의 집은 고령이 많은 일본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노인들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교양, 오락시설까지 갖춘 가장 깨끗한 건물이었다.

이 병원의 호스피스활동은 1991년 강남성모병원의 연수를 통하여 시작되었는데 아침에 직원들이 각 환자마다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다. 계절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공원이나 사찰 등으로 산책을 가기도 하고 월 1회 기분전환과 가족들의 추억이 되도록 다채로운 행사도 갖는다.

호스피스 병동은 깨끗하고 넓으며 집처럼 안정된 분위기를 주기 위해 모든 가구들의 색을 갈색톤으로 하였고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음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호스피스는 말기의 인식보다 마음의 회복과 증상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방문간호는 1992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문간호 종사자는 보건간호사, 이학 요법사, 작업 요법사로 구성되어 있고, 1회 방문 시 250엔+거리에 따른 교통비가 기 인데, 그 외의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해주고 있었다.

모델병동인 PFFC (Patient & Family Focused Care)는 환자, 가족 중심의 의료로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2년 전부터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기록을 줄이기 위해 Clinical Sheet를 만들어 수술 준비기, 수술 후 회복기, 수술 후 리허빌리티, 퇴원준비기로 나누어 의사지시 및 간호 기록을 함께 기록할 수 있게 하였고 각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이 모델병동은 A, B 병동을 합하여 74병상으로 간호사 1명이 7~1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근무는 2교대이며, 야간 근무자가 교대로 1시간씩 가면 할 수도 있었다. 약은 약 Cart를 통해 약국에서 직접 올라오며 약사 한 명이 병동에 상주하여 복약지도를 전담하고 있었다.

보건센터에서는 맹인 당뇨환자를 위한 점자책자도 준비되어 있을 정도로 이 병원의 직원들 모두가 친절하고 환자의 편의를 위해 세세한 신경까지 쓰고 있으며 특히 의료진들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료과정을 설명해주는 Informed Consent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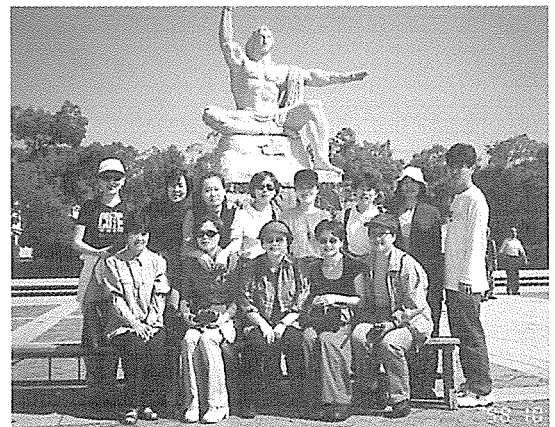
이번 연수일정은 예전과는 달리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의 서로의 불편을 감안하여 개인의 스케줄보다는 함께 강의 받고 견학하는 시간을 많이 배정해 주었다. 언어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병원의 업무이고 또한 통역자가 있어 연수기간 동안 큰 어려움은 느끼지 못하였다.

하루는 숙소인 마리안하우스에서 갑자기 울린 화재경보 벨소리로 인해 모두들 긴장 속에 당황하고 있을 때, 슬리퍼를 신을 사이도 없이 맨발로 뛰어 올라온 경비들의 태도에 감동했고, 이들의 세세한 조사에 의해 밝혀진 것은 배추를 삶은 물을 부을 때

한꺼번에 올라간 수증기로 인해 화재경보기의 벨이 울린 것이었다. 모두들 긴장 속에 있다가 큰소리로 옷을 수밖에 없었고 이 이야기는 마지막 송별회까지 화재거리가 되었다.

길을 물을 때면 자신이 타야 할 버스를 몇 대씩 놓치면서까지 정성을 다해 가르쳐주는 모습들,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아예 같이 내려 명소를 안내하고 설명까지 해주던 택시기사, 신호에 멈추어 섰다가도 꼭 출발한다는 방송을 알리는 버스기사의 음성에서 오래 전부터 이미 배어있는 일본인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 인사차 병원장실을 들렀을 때 잘 꾸며지지 않아 마치 현장사무실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일본인들의 겸손함과 검소함을 엿볼 수가 있었다.

끝으로, 일본의 깨끗한 환경과 친절함 속에서 2주간의 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마리아 병원과 특히 통역담당인 이께다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 연수를 주관해 주신 가톨릭 병원협회에 감사를 드린다.



<나가사키 평화의 공원에서>